

# 『東野彙輯』 「婦女部」에 드러난 여성에 대한 시각과 그 의미\*

이강석\*\*

## | 목차 |

- |                         |                                 |
|-------------------------|---------------------------------|
| 1. 머리말                  | 대상: 「婦女部」 상편                    |
| 2. 『東野彙輯』 「婦女部」의 구성과 특징 | 4.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제한적 인식: 「婦女部」 하편 |
| 3. 남성의 도약과 성적 욕망의 실현    | 5. 맺음말                          |

## | 초록 |

야담 속 여성 형상화에는 사족 남성의 시선이 투영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 다수는 계보를 획득할 정도로 활발하게 향유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유념하면서, 전대 야담의 주요 이야기를 집성한 『東野彙輯』에서 여성에 초점을 맞춘 「婦女部」 상편과 하편의 주된 경향성을 살폈다. 「부녀부」 상편의 주인공은 가부장제의 직접적 영향 아래 놓인 여성들로, 사족 남성이 저락한 사회적·경제적 처지에서 도약하기 위한 수단이자, 성적 욕망의 달성 대상으로 구체화되었다. 「부녀부」 하편의 주인공은 가부장제가 설정한 家의 직접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난 존재들이다. 그래서 주체적인 면모가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주체성 역시 사족 남성이 고안한 가부장제에 부합하며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편과 동일한 문법이 관철되고 있었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8728)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東野彙輯』 연구-이야기 구성과 지향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2025)의 제4장 1절 2항을 확장·보완한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보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부산대학교 rkdtjr28@hanmail.net

이런 「부녀부」의 경향성은 보수적 야담집으로 규정되어 온 『동야휘집』에 대한 평가를 재고하기 위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동야휘집』은 전대 문헌과 야담을 광범위하게 포섭했고, 특히 「부녀부」의 경우는 대부분 전대 야담집에서 전사한 이야기로 채워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론 부연이나 번개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는 기존의 경향성을 부각하는 방향에 가깝다. 따라서 『동야휘집』 「부녀부」에 보이는 경향성은 전대 야담에서부터 이어져 온 연속성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보수적 야담집으로 규정된 『동야휘집』에 대한 평가는 보편성으로 완화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野談, 『東野彙輯』, 「婦女部」, 여성, 주체성, 사족 남성, 욕망

## 1. 머리말

지금까지 야담 속 ‘여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진행되었다(현혜경(1987); 이신성(1993); 장진숙(1993); 강영순(1995); 이월영(1997); 최기숙(2002, 2003a, 2003b, 2003c); 광정식(2006); 정규식(2007); 이강옥(2008); 김지연(2016); 이주영(2018); 정솔미(2018); 이승은(2020)). 광범위한 연구의 흐름에서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은 야담에 그려진 여성이 남성의 시선을 통해 성립했다는 것이다. 구전되던 이야기를 문자화한 야담은 기록자인 사대부 남성의 지향을 투영한다(진경환, 1983). 그래서 여성의 자발성 혹은 주체성이 드러나는 장면을 포착하지만, 그들이 ‘내조자’ 혹은 ‘보조자’와 같은 수동적 지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문학적 ‘이중성’은 사대부 남성의 판타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김대중, 2019: 150-151).

18세기 중엽의 『동패락송』을 시작으로 활발히 향유된 야담은 19세기에 전성기를 구가했다. 거개의 야담집이 상호 수용과 전재를 반복하며 이본을 양산했다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입증한다.<sup>1)</sup> 여기에 주목해 야담을

1) 20종 10책 분량의 야담을 정본화한 『정본 한국 야담전집(정환국 책임교열, 2021)』의 해제에서는, 대상 야담집들의 총 화수가 4천 2백여 항목이고, 20종 안에 반복되는 공

계보화의 관점에서 살핀 연구에서는 계보화한 야담 95편의 전승 관계를 살핀 뒤 出仕와 結緣 화소를 가진 34편을 고찰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야담에서 여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여성이 남성 사대부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단속하는 보수적 방향으로 그려진다는 것이다(남궁윤, 2022).

신발적으로 존재하던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곳으로 모아냈다는 점에서 이원명이 편찬한 『東野彙輯』의 「婦女部」가 주목된다. 1869년에 완성을 본 『동야회집』은 야담에서 폭넓게 향유되었던 주요 이야기를 모두 수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정환국, 2024: 239). 이는 『동야회집』을 구성하는 13部の 편제 가운데 하나인 「부녀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계보를 획득한 야담을 다수 싣고 있다는 점에서 『동야회집』에는 야담 속 여성에 대한 시선이 종합·집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오히려 『동야회집』의 보수적 색채를 입증하는 유력한 근거 중 하나로 주요하게 활용되었다(김상조, 2003). 여성에 대한 보수적 시각을 담았다는 표면적 현상에 주목했을 뿐, 이야기 배치 방식이나 경향성, 전대 야담과의 연속성 등은 고려되지 못했던 것이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이러한 불완전한 평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야담 속 여성의 모습이 남성의 시선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동야회집』 「부녀부」의 구성과 특징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부녀부」 상편과 하편의 경향성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 2. 『東野彙輯』 「婦女部」의 구성과 특징

『동야회집』은 전대 야담을 광범위하게 수용했다. 전체 260화의 이야기

---

통 화소의 빈도가 예상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독립된 이야기 화소는 약 1,000개이고, 좀 더 서사적인 이야기 군은 300가지 안팎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다종의 야담집에 빠짐없이 전재되어 자기 계보를 획득한 작품이 150여 편 내외라고 밝혔다.

는 13部和 130화로 정연하게 구획된다. 部는 비교적 큰 주제로 이야기를 묶은 것이고,<sup>2)</sup> 화는 한 주제로 두 이야기씩 짝을 지은 것이다. 어떤 주제를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간주했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둘은 특정 주제 아래 이야기를 彙錄한 결과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따라서 『동야회집』의 13部和 130화 260話라는 수치는 260가지의 다양한 목소리를 130가지로, 13가지로 압축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한 결과라 하겠다.

13部 가운데 하나인 「부녀부」 역시 마찬가지다. 「부녀부」에서는 전대 야담에서 주요하게 향유되었던 여성 야담을 수합하고 필요에 따라 윤색을 가했다. 특히 「부녀부」 하편의 「12-2. 授簡書老婦垂誠」은 청대 필기집 『諧鐸』의 두 이야기를 복합적으로 수용·개작한 새로운 야담이기도 했다. 이처럼 휘록과 개작 두 방식이 엇물리며 성립한 「부녀부」는 전대 야담의 수합이라는 단순한 목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는 야담 속 여성에 대한 기존의 시선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자신의 시선까지 엮어 일관된 시선을 보여주려는 편찬자 이원명의 의도가 내재해 있다고 하겠다.

「부녀부」가 아니더라도 『동야회집』에서는 여성 야담이 상당수 등장한다. 「절의부」에서도 여성 서사가 다수 등장하고, 다른 여러 部에서도 여성이 중심에 놓이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sup>3)</sup> 하지만 그렇기 때

2) 『동야회집』 전체 13부는 「恩數部」·「儒賢部」·「將相部」·「節義部」·「技藝部」·「方術部」·「道流部」·「性行部」·「人事部」·「婦女部」·「雜識部」·「述異部」·「拾遺部」로 구성된다.

3) 대표적인 사례로 「장상부」의 정기룡과 광재우 부인, 「절의부」 貞烈 조목의 여섯 절부와 유인숙의 여중, 「방술부」의 봉화 여중, 「성행부」의 이기축과 이장곤 처, 「잡지부」의 홍도, 「술이부」의 기생 粉英과 「15-7. 返故妻換魂持家」의 전처와 후처, 「습유부」의 기생 매화와 초운 등이 있다. 또 이들처럼 서사의 전면에 개입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역할을 인정받는 여성 등장인물을 헤아려보면, 총 50명 가량을 확인할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의 역할을 인정하느냐가 문제겠지만, 『동야회집』에서 「부녀부」의 여성 서사 36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에 대한 주목이 이뤄짐을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없을 듯하다.

문에 「부녀부」의 의미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에 대한 다양한 야담 가운데서도 특정한 야담을 ‘婦女’라는 표제로 묶은 것은 그 이야기들을 선별하고 배치하는 데에 일정한 의도가 개입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녀부」의 전체 구성을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1〉 『東野彙輯』 「婦女部」의 구성

部	總目	작품명	部	總目	작품명	
婦女 (上)	德行 (2)	11-1. 葛布獨赴命婦筵	才慧 (4)	一	12-1. 藏扇幣童女證約	
		11-2. 紅紉三裁大官服			12-2. 授簡書老婦垂誠	
	奇婚 (4)	一		11-3. 驚異夢竟成奇婚	二	12-3. 對棘婿捧標立證
				11-4. 作良媒俱受晚福		12-4. 納菜婢授計求嗣
		二	11-5. 絲轎據廊責貴子	妬悍 (2)	12-5. 憐女貌赦罪接話	
			11-6. 紈扇映鉞約正室		12-6. 削夫髻施罰雪憤	
	佳緣 (4)	一	11-7. 合玉環逢妻得胤	仇恨 (2)	12-7. 驚劒血青樓飲恨	
			11-8. 失青銅獲妾橫財		12-8. 借弩手又鬢復讎	
		二	11-9. 賢婦智納彩轎女	奇遇 (2)	12-9. 掃雪庭獲窺故情	
			11-10. 嚴父醉恕錦囊兒		12-10. 簪花路遇諧舊緣	
	異蹟 (4)	一	11-11. 轉誤緣紅錦寄信	志操 (2)	12-11. 尼菴逢郎問登科	
			11-12. 脫禍網玉環踐約		12-12. 仙樓對客話贈詩	
		二	11-13. 尋宿盟三婦同室	情義 (2)	12-13. 蠹石樓兩女黜陟	
			11-14. 獲奇遇二妾列屋		12-14. 納清亭二客哂笑	
	智識 (4)	一	11-15. 轎中納鬻誑賊帥	才妓 (2)	12-15. 咸關對唱娥留期	
			11-16. 城裏埋藥恁詔使		12-16. 長城遇詩妓見賣	
		二	11-17. 保家業一聽智婦	名唱 (2)	12-17. 星月每道三可笑	
			11-18. 換身粧雙占饒妾		12-18. 玉香爲說兩未忘	

『동야휘집』 「부녀부」 상편과 하편은 각각 18편의 이야기를 담아 총 36편의 이야기로 구성된다. 「부녀부」 상편의 특징으로는 등장인물이 사대부가 혹은 일반 여성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구성의 측면에서는 여성의 덕목에 해당하는 德行·智識과 남녀의 결연에 초점을 맞춘 奇婚·佳緣·異蹟으로 나뉜다. 하편도 대상을 중심으로 구별할 수 있다. 才慧·妬悍이 일반 여성이 주인공이라면 仇恨·奇遇·志操·情義·才妓·名唱은 여종과 기생이 주인공이다. 이런 경향성을 보면 「부녀부」 상편은 상층 내지 일반 여성을, 하편은 하층 여성의 서사를 집중적으로 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부녀부」 상편과 하편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여성의 계층이며, 이러한 구획은 가부장제가 설정한 家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sup>4)</sup>

「부녀부」 상편은 德行을 위시한 5개의 조목으로, 하편은 才慧를 위시한 8개 조목으로 구성된다. 조목에 배치된 작품 수의 분포도 유의미한 점이 있다. 상편의 奇婚, 佳緣, 異蹟, 智識 조목에는 각각 네 작품씩 포함된다. 이 말은 곧 奇婚을 위시한 네 조목의 이야기들이 전대 야담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받으며 활발하게 향유되었음을 의미한다.

奇婚, 佳緣, 異蹟 조목은 남녀의 결연이 중심에 놓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奇·佳·異다. 사족 남성인 편찬자 이원명의 입장에서 기이하고, 아름답고, 이채로운 결연이라 정의한 셈이다. 이들 수식어는 보편적·정상적 범주에 구애되지 않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특별한 능력인 지인지감에 주목한 智識 조목의 이야기들도 비슷한 결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녀부」 상편의 경향성은 가부장적 배경이 적극 작동하는 가운데 여성의 모습을 그려낸 야담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이면

4) 물론 「부녀부」 상편과 하편의 모든 작품이 이 기준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부녀부」 하편의 초반부 才慧 조목에 실린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상편의 여성들과 계층적 동질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하편에 배치된 妬悍 조목을 고려하면 상편과 하편의 분기는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의 시각이 갖는 긍정성과 부정성을 염두한 배치로 여겨질 수도 있을 법하다. 다만 그 긍정과 부정의 기준 역시 남성의 가부장제적 시각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고에서는 가부장제가 설정한 家를 상편과 하편을 가르는 가장 유력한 기준으로 보았다.

서, 환상적·비현실적 사건에 의해 남성의 판타지가 실현되는 서사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부녀부」 하편에서 중요한 점은 여종·기생의 이야기가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런 계층적 분포만큼 이목을 끄는 것은 첫머리인 才慧 조목이다. 여기서의 하층 여성의 이야기가 아닌 일반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따라서 하층 여성에 주목했다는 주류적 흐름에서 다소 벗어난 듯 보인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들이 왜 상편이 아닌 하편에 속하게 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才慧 조목에 실린 네 편의 여성담은 여성의 주체성이 부각된 이야기들이다. 「12-1. 藏扇幣童女證約」에서 자결을 통해 적서차별을 없앤 양사언 모친, 「12-2. 授簡書老婦垂誠」에서 수절을 개인의 의지에 위임한다는 유훈을 남긴 節婦 장씨, 「12-3. 對棘婿捧標立證」에서 시부의 喪中에 남편과 동침하고 手記를 요구한 신부, 「12-4. 納棠婢授計求嗣」에서 여종을 대신 침실로 들여보내 2남 1녀를 얻은 임씨 부인의 행위는 가부장적 윤리라는 기준에서 정상적이라 보기 힘든 것들이다. 이상의 특징을 갖는 「부녀부」 하편의 경향성은 家로 설정된 가부장제의 직접적 영향력 밖에 자리한 여성들이 중심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야기의 중심에 놓인 여성들의 주체적 면모는 상편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록자인 사족 남성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부녀부」의 구성은 『동야휘집』 이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선본인 「대판본」에 실린 이야기는 총 36화이고, 「천리대본」도 동일하다. 그다음으로 평가받는 판본인 「서울대본」의 경우 총 19화로 구성된다. 눈에 띄는 점은 「서울대본」에서 「대판본」의 28화~36화를 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기생’이 중심이 된 이야기들이다. 이 점은 적어도 기생 이야기가 일반 여성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취급되었다는 증거일 수 있고, 그런 기준에는 역시나 가부장제의 엄격한 기준이 드리워져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렇듯 누락의 사유가 명확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다만 이런 작품들이 있기에, 일정한 정형성을 가진 작품들에서 되풀이되는 의미가 부각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동야휘집』은 전대 야담을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변주했다. 「부녀부」 역시 그러한 경향성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 수용과 변주 양상은 단선적으로 해명되기 어렵다. 원 이야기를 전사하다시피 한 경우가 대다수인 가운데 윤색이 가해진 이야기나 개작이 시도된 이야기 역시 일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사한 경우는 원 이야기 역시 사대부 남성과 기성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이었기에 별다른 변화가 가해지지 않은 것일 터이고, 윤색과 개작이 발생한 경우는 편찬자 이원명의 의도가 「부녀부」의 조직과 배치에 긴밀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구성과 특징에 유념하면서 「부녀부」 상편과 하편에 드러난 여성에 대한 시각과 그 의미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 3. 남성의 도약과 성적 욕망의 실현 대상: 「婦女部」 상편

『동야휘집』 「부녀부」 상편 첫머리에 놓인 德行 조목에는 「11-1. 葛布獨赴命婦筵」, 「11-2. 紅紉三裁大官服」 두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다. 두 이야기는 상층 여성의 정형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11-1. 葛布獨赴命婦筵」에서는 月沙 李廷龜의 夫人 權氏가 命婦의 연회에 葛布를 입고 갈 정도의 검소함을, 「11-2. 紅紉三裁大官服」에서는 文谷 金壽恒의 夫人 羅氏의 선견지명과 지인지감 藻鑑에 주목했다.

검소함은 여성의 행장이나 제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덕목이며, 선견지명과 지인지감 또한 마찬가지이다(김경미, 2012: 65). 사족 남성에게 해 상투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표현은, 추승과 현창이라는 의도에 부합하도록 정형화된 틀이다. 이 작품에 대한 편찬자 이원명의 인식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두 작품의 사평에서는 이 여인들의 婦德이 가문의 번성

과 후손의 번영을 유도한 것으로 본다.<sup>5)</sup> 두 이야기 속 ‘賢婦’의 모습이 사족 남성과 그들이 고안한 가부장제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德行 조목 이하에서 사족 남성의 사회·경제적 도약과 성적 욕망의 관철이 반복적으로 표출된 것은 이러한 문법에 기반한다.

이어지는 조목은 奇婚으로 총 네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 조목을 대변하는 ‘기이하다’는 가치 평가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11-3. 驚異夢竟成奇婚」의 주인공 정효준은 세 번 喪妻했고, 딸만 둘을 두었다. 端宗의 봉사손이었음에도, 그 제사조차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안의 가난은 극심했다. 이런 상황은 정효준에게 필요한 것이 ‘아내’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사회적으로 열등한 처지에 배우자를 선택할 주도권이 있을 리 만무했다. 이에 정효준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인 이진경의 딸과 혼인하고자 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하지만 ‘꿈’을 통해 정효준은 불가능에 가까웠던 혼인에 성공했다. 그 결과 五子登科의 경사, 부귀영달, 95세까지 누린 천수 등 萬福이 몰려들었다. 이 이야기에서 ‘꿈’의 중요성은 淸언을 요하지 않는다. 편찬자 이원명도 그 혼인의 결정적 계기인 꿈에 주목했다.<sup>6)</sup>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야기 배치에 보이는 의도다. 「11-3. 驚異夢竟成奇婚」은 奇婚 조목 아래 실린다. ‘驚異夢’이라는 제목만 본다면 합당한 배

5) 「11-1. 葛布獨赴命婦筵」, “外史氏曰: … “迨茲德行, 永享福慶, 宜其子姓蕃昌, 爲東方華閥甲族也.”; 「紅紬三裁大官服」, “外史氏曰: “…作配名門, 永受多祉, 而誕育多子如下氏之六龍, 垂裕後昆, 克大以昌, 其非夫人懿德之致耶?” 이하 『東野彙輯』의 원문과 역문은 각각 정환국 책임교열(2021); 김종근 외 6인 번역·김현룡 책임 감수(2023)을 참고해 제시하였다. 단 원문에서 구두점에 차이가 있는 경우나, 번역문에서 윤색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 없이 수정해 제시한다.

6) 「11-3. 驚異夢竟成奇婚」, “外史氏曰: “海豐之奉朝家祠宇, 洵同一間茅屋之祭, 此國人之所愴感者. 家貧而香火難繼, 尤嗟傷處也. 赫命在上, 諭戒諄復, 顯聖靈佑, 若是丁寧, 可見神理孔昭, 吁亦異哉! 人生窮達, 莫非天賦, 故夢兆命數, 如合符契, 凡事皆有前定, 而人苦不自知耳.”

치라 하겠다. 하지만 편찬자 이원명이 주목한 ‘기이함’은 꿈만으로 볼 것이 아니다. 「11-3. 驚異夢竟成奇婚」과 ㅅ를 이루는 작품은 김우항이 주인공인 「11-4. 作良媒俱受晚福」이다. 이 역시 정효준 이야기와 유사한 조건에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김우항은 예순이 넘은 동료 목릉 별검 정 참봉과 서른이 되도록 혼처를 구하지 못한 도별꾼 누이의 중매를 썼다. 이후 정 참봉은 아들 둘을 두었고, 그들과 손자까지 급제하게 된다. 김우항의 중매에 도별꾼의 노모는 25년 동안 한결같이 김우항의 발복을 축원했다. 이 혼인의 파급력은 예순을 넘기고 喪妻한 정 참봉 본인의 결핍이 해소되는 정도를 넘어, 혼인을 중매한 김우항의 영달에까지 관여했다. 이는 곧 이러한 형태의 혼인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보여준다.

「11-3. 驚異夢竟成奇婚」과 「11-4. 作良媒俱受晚福」은 현격한 나이 차를 극복한 혼인에 주목했다. 따라서 편찬자 이원명이 주목한 ‘奇婚’의 기이함이란 두 이야기에서 공히 다루고 있는 혼인의 비대칭성을 향하는 것이다. 이런 혼인을 통한 발복이 직접적으로는 혼인 당사자인 남성의 가문에, 간접적으로는 그 혼인에 관여한 남성에게 미친다는 점이 주목의 이유였다. 따라서 「11-3. 驚異夢竟成奇婚」과 「11-4. 作良媒俱受晚福」은 여성 서사로 인식되어 「부녀부」에 배치되었지만, 이들을 공통적으로 인식한 奇婚은 사족 남성의 시선이 적극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sup>7)</sup>

정효준과 김우항 이야기에서는 여성이 주인공이지만 그 존재감이 서사 전면에서 드러나진 않는다. 반면 주체적·적극적으로 자신의 才智를 드러

7) 奇婚 조목의 나머지 두 이야기인 「11-5. 綵輜據廊責貴子」와 「11-6. 純扇映鏡約正室」은 남성과 가문의 직접적인 현달과 연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의 두 이야기와는 이질적이다. 하지만 두 이야기의 여성 주인공은 가부장제를 완벽히 내면화한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두 여인은 모두 첩이 되기를 거부하고 정식 혼례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확보한다. 「11-5. 綵輜據廊責貴子」에서는 노재상 尹絳의 정실이 된 유씨 부인이 가법을 바로잡아 후손이 영달했고, 「11-6. 純扇映鏡約正室」에서 여주인공은 흥운성의 후처가 되어 그의 괴팍한 성격을 순치했다. 따라서 두 이야기의 주인공 여성이 가부장제를 내면화하여 남성을 보조하고 가문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역시 남성의 시선이 적극 투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는 경우도 있다. 智識 조목에 속한 이야기들이 그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성은 여성성이 결여되었음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11-16. 城裏埋藥榑詔使」에서 정충신은 노재상의 庶女를 첩으로 맞이한다. 문제는 그녀가 ‘덩치가 크고 말씨가 無味하여[軀殼甚大, 語言無味]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찰사가 정충신을 급히 불렀는데, 첩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견하고는 대처법까지 알려준다. 그 일이란 곧 중국 사신들이 백금 2만 냥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이다. 정충신은 첩이 일러준 대로 대포를 쏘고 화약을 터뜨려 중국 사신들을 겁에 질려 돌아가게 하여 이 일을 해결했고, 이로 말미암아 정충신은 관찰사로부터 후한 예우를 받았으며 이후 얼마다 첩에게 의논하였다고 한다. 「11-17. 保家業—聽智婦」 역시 비슷하다. 장세걸의 아들은 심심산골의 가난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용모와 행동거지가 놀라울 정도로 미상스러운[容貌舉止可憎可駭] 추녀였던 까닭에 식구들의 비웃음을 산다. 하지만 여인은 방 안에 앉아서도 살림을 잘 꾸리는가 하면, 멀리 떨어진 친정의 소식을 단번에 알아채기도 한다. 어느 날, 여인은 식구들을 이끌고 번듯한 살림이 차려진 친정이 있는 산골로 들어간다. 곧 바깥세상에 벌어질 왜구의 난리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추녀’ 혹은 ‘여성적 매력이 부족한 여성’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적지 않은 나이 차를 극복하고 젊은 여성과의 결합하는 서사에 투영된 사족 남성의 성적 욕망과는 결을 달리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런 부족함이 ‘지혜로움’ 혹은 ‘선견지명’에 의해 채워진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진경 딸이나 도별꾼 누이와 달리 이들의 지혜와 선견지명이 서사의 전면에 드러나고 있지만, 그 역시 사족 남성의 사회적 성취와 가문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족 남성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탈하는 대상에 여성의 ‘미모’(곧 性)뿐만 아니라, 여성의 지혜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동시에 여성의 才智가 여성의 주체적 면모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함을 피력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상 살펴본 이야기에서 여성의 존재는 매몰되거나, 혹은 표출된다 하더라도 오직 사족 남성의 목적성을 위해 존재한다. 사정은 비슷하지만, 취첩담의 경우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물론 축첩이란 사족 남성의 복수적 성관계에 대한 욕망을 제도화한 것이니, 여기서도 여성은 욕망의 달성을 위한 ‘대상’으로 존재한다. 다만 그 관철 방식이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일방적으로 나타나지만은 않는다. 축첩제도는 사족 남성의 성적 욕망을 암묵적으로 공인하는 제도적 장치이면서도, 일각에서는 그것을 금기시하는 시선이 병존했던, 이중적 상황에 좀 더 유념하면서 살필 필요가 있다.

佳緣 조목의 「11-9. 賢婦智納彩輜女」에서 이경류의 선조는 가난한 집안 형편을 회복하고자 추노하러 가는 도중 우연히 한 여인과 동침하게 된다. 무남독녀인 이 여인은 어릴 적 꿈에서 본 사내와 결혼하기로 굳게 다짐했다며 한사코 그와의 결혼을 고집한다. 게다가 그 집안에서는 추노의 속량금보다 더 많은 재물을 제시했다. 이에 주인공은 부득이 여인과 동침한다.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이 아내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자, 아내는 그 불가피했던 사정을 古談으로 꾸며 엄한 시아버지를 설득했다. 마침내 소실을 집안에 들이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맺음한다.

자부는 곧장 종에게 명하여 旅店으로 가서 소실을 재촉해 들어와 인사시키라고 했다. 잠시 후 사람과 말이 거리를 가득 메우더니 아름다운 얼굴을 한 부인이 마에서 나와 시부모와 정실부인에게 인사를 올렸다. 노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상자와 짐꾸러미가 산처럼 쌓이니, 가난하던 시골 선비가 갑자기 부자가 되어 기쁜 기운이 가득 찼다. 이후에 선비는 벼슬길에 올라 마침내 牧使에 이르렀다. 자식들도 번성하여 행복한 경사를 누리니, 이는 모두 현명한 부인의 도움이라고 했다.<sup>8)</sup>

8) 「11-9. 賢婦智納彩輜女」, “婦卽命蒼頭, 往旅店, 催小室入見. 俄頃, 人馬填巷, 一玉面婦人, 出自彩輜, 推納拜於公姥及正室, 奴婢雲集, 箱篋山積. 窮措大猝成富家, 喜氣盈門. 後筮仕至牧使, 多子姓享福慶, 皆賢婦之助也.”

부인이 질투하지 않고 소실을 들인 행위만으로 가난한 시골 선비(窮措大)의 저락한 처지는 일순간 경제적으로 넉넉해진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벼슬을 손에 넣는 환상적인 결말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질투를 금기시하는 것은 복수적 성관계에 대한 남성의 욕망을 원활하게 관철시키는 주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편찬자는 그 도구를 적극 활용한다. 이러한 사족 남성의 욕망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이는 哲婦가 되고, 이 여인의 행위로 인해 기울어가던 가세가 일거에 회복되며 남성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거머쥐게 되는 것이다.<sup>9)</sup> 이러한 구조의 이야기 역시 앞서 사족 남성과 가문에 대한 여성의 기여를 거듭 강조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智識 조목에 실린 「11-8. 失靑銅獲妾橫財」에서 우하형은 벼슬이 떨어진 뒤, 가난한 생활을 이기지 못해 엽관 운동에 뛰어들다. 하지만 서울로 가는 길에 병조판서택 首奴를 사칭하는 자를 만나 엉뚱하게 돈을 탕진하게 된다. 낙심한 우하형은 차라리 죽기를 결심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부녀자의 집에 내정돌입하여 겁간한 뒤, 맞아 죽는 것이었다. 그런데 죽으러 들어간 집에서 뜻밖의 당돌한 여인을 만난다.

우하형이 말하였다.

“나는 본래 宣傳官이었는데, 도둑놈에게 속아서 가산을 탕진하고, 죽기를 결심했으나 自盡할 수 없었다네. 다른 사람에게 맞아 죽고자 해서 어그러진 일을 한 것이지. 지금 네 남편이 없으니, 죽는 것 또한 어렵군.”

여인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공께서는) 정말 미쳤네요! 어찌 세상에 죽음을 구하여 죽지 못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은 西班牙의 華閥이시온즉, 어찌 하필 이런 風骨로 헛되이 죽고자 하십니까? 첩에게도 구구한 사정이 있어서, 한번 죽고자 했지만, 진실로 어렵군요.”<sup>10)</sup>

9) 「11-9. 賢婦智納彩輜女」, “外史氏曰: “女子偏性, 故易妬而不妬者, 乃哲婦, 此所以穆·螽之著於國風也. 婦爲夫納媵, 克盡和悅, 又能寬舅之慍, 其賢淑才智, 果何如也? 妾堅守己志, 自擇良耦, 決然從歸, 亦慧識之出類者歟!”

10) 「11-8. 失靑銅獲妾橫財」, “禹曰: “吾本前日宣傳官, 爲賊漢所斯盡失家產, 決意就

죽기를 결심하고 들이닥친 우하형에게 오히려 여인이 되묻는다. 단순한 반문이 아니었다. 華閥이니 風骨이니 하는 말들은 모두 우하형의 사람됨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여인은 자신의 확신을 통해 죽음을 만류하고, 엽관 운동을 한답시고 사기를 당해 돈을 몽땅 잃어 위축된 사족 남성을 위로했다. 한편, 여인도 자신 역시 죽고자 하였으나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정치의 구박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두 사람은 같은 처지임이 확인되었고, 우하형은 여인의 청에 따라 그녀를 첩으로 맞아들인다. 그 결말은 첩의 패물로 집안이 넉넉해지고, 우하형은 다시 벼슬하여 절도사에 이르렀던 것이니, 역시나 남성의 도약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들의 전형성을 벗어나지 않는다.

생면부지의 타자로부터 인정받는 우하형의 모습과 그 인연으로 남성이 재기할 수 있었다는 이 서사는 돌발적 요소로 채워진다. 이러한 패턴은 취첩담에서 재차 반복된다. 異蹟 조목의 「11-11. 轉誤緣紅錦寄信」에서 李安訥은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잠드는 바람에 어느 역관 집 종들이 그를 새신랑으로 오해하여 집안에 들여놓아 남의 집 새신부와 동침한다. 그리고 「11-12. 脫禍網玉環踐約」에서 洪暹은 딸의 액막이를 위해 첩으로 삼아달라는 아버지의 말에 속아 연을 맺는다. 과정은 달랐지만, 두 이야기 역시 집안이 부유해지고 복록을 누렸다는 것으로 끝맺음한다.

한 명 이상의 첩을 들이는 이야기도 있다. 「11-13. 尋宿盟三婦同室」은 주인공 柳綽然이 본처와 의형제였던 두 여인을 모두 첩으로 맞아들이게 된다는 이야기다. 비슷한 경우로 「11-14. 獲奇遇二妾列屋」도 있다. 주인공인 사족 남성은 자신을 따라온 미녀를 첩으로 삼아 집안 형편이 나아지고, 그 여인이 데려온 또 다른 미녀를 첩으로 삼았더니 벼슬에 나아가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들에서는 대개 여인들이 능동적인 태도로, 오히려 자신

死, 而不能自盡, 欲爲人打殺, 故作悖舉, 今汝夫不在, 死亦難矣.” 女笑曰: “信乎狂也! 且豈有求死而不得者乎? 公果西班閥華, 則以此風骨, 何必浪死? 妾有區區情事而一死, 誠難矣.”

들이 나서서 흔쾌히 접이 되기를 원한다.<sup>11)</sup>

우하형 이야기 이하의 작품에서는 사족 남성이 뜻밖의 사연으로 인해, 혹은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부득이’ 축첩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욕망의 주체인 사족 남성은 수동적인 태도로, 심지어는 마지못해 축첩을 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11-13. 尋宿盟三婦同室」, 「11-18. 換身粧雙占饒妾」은 일찍이 ‘우연’으로 인해 사족 남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일거에 도약하게 되는 사례로 지적되었다(이강옥, 2006: 378-380). 이론의 여지 없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남성의 입장에서 기이한 우연이지만, 그 이면에 여성의 계획이 치밀하게 작동한 결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편찬자 이원명 역시 두 이야기에서 남성에게 일어난 일을, 하늘이 정한 필연의 소치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sup>12)</sup> 이렇듯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반복적으로 그려내었던 것은, 남성에게 국한되어 부여된 이 우연성이 현실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강력한 기대심리를 대변하는 기제였다. 편찬자 이원명이 이들 이야기에 아름답고佳 이채로운異 남녀의 결합이라는 대표성을 부여한 것은 이 때문이다.

11)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조금 다르게 살펴야 할 작품도 있다. 「11-18. 換身粧雙占饒妾」에서 宋進士는 평소 마음에 담아 둔 과부의 초대를 받는다. 그런데 과부가 송 진사를 초대한 것은 자신을 보쌌하려는 마을 이방의 계획에 대한 대비책이었다. 그렇게 송 진사를 보쌌해 온 이방은 놀랐을 과부를 진정시키려 딸과 같이 자게 했다. 그 덕분에 송 진사는 이방의 딸을 손쉽게 범했다. 이후 송 진사는 과부와 이방의 딸을 동시에 맞이하게 되고, 집안이 융성해지고 자손 또한 번성하게 되었다. 중요한 점은 송 진사와 이방 딸과의 관계는 강제적, 의도적으로 맺어지지만, 이러한 행위는 송 진사가 두 여인을 거느리고 부유하게 살았으며 후대가 번성하다는 ‘결과’에 의해 문혀버린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사족 남성의 성적 욕망이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있다고 하겠다.

12) 「11-13. 尋宿盟三婦同室」, “外史氏曰: “女子有行, 固待天定之緣, 而三女結義, 誓以同歸, 矢死靡他, 竟諧宿願, 其志可尙, 其事甚奇. 月老赤繩之湊, 成此佳緣, 可見人有所願, 天必從之. 而柳妻即近於女俠者, 媒彼兩娥, 能踐宿約. ‘宴爾新婚, 如兄如弟’, 彗彼小星, 抱衾與禡, 『詩』不云乎?”; 「11-18. 換身粧雙占饒妾」, “外史氏曰: “『倡善感義錄』, 尹汝玉粧女服, 而得親嚴嵩之女. 蓋似此奇遇, 古亦有之, 而因鴻羅而成鴛合, 亦非天定歟? 村女之打扮換形, 獲免強暴, 其智巧矣. 生之一舉而得兩女, 皆因其婦之計, 則可謂時來風送, 因人成事者也.”

현실적인 이유도 지적할 수 있다. 축첩의 명분은 다양했지만, 저항할 방법은 많지 않았다. 여성의 입장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妬忌’며 ‘不德’이라는 죄목이 씌워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성은 남편의 축첩에 직접 저항하기보다는 婦道를 통해 자신을 도덕적으로 재무장하는 소극적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다시금 남성의 전략에 포섭되어 축첩을 유지되게 하였다(김경미, 2012: 93-94). 하지만 서사 속에서 벌어지는 축첩의 모습은 이런 현실과는 다르다.

앞서 언급한 「11-9. 賢婦智納彩輜女」와 뒤이어 배치된 「11-10. 嚴父醉怨錦囊兒」 두 이야기는 주인공 남성이 嚴父의 엄격한 윤리적 가르침 아래에서 자라난 사실을 강조한다.<sup>13)</sup>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서사, 다시 말해 주인공 남성이 부득이하게 첩을 들이면서 겪게 되는 압박과 직결된다. 하지만 그 문제는 옛이야기로 꾸며 들려준다거나, 혹은 첩의 가문에서 성의를 내보임으로써 해결된다. 엄격한 윤리적 잣대의 위반에 대한 시시비비는 가려 볼 기회조차 사라지고, 위반을 관대하게 수용한 결과는 사족 남성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가문의 영달로 이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자발적으로 사족 남성에게 첩으로서 종속되는 장면이 거듭해서 등장했던 것은 그들의 성적 욕망이 더욱 원활하게 관철되기 위한 장치였다. 그 방식의 피동성은 ‘엄부의 질책’으로 표상되었던 금기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였다. 사족 남성을 향해 돌진하는 여성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마침내 사족 남성의 복수적 성관계에 대한 욕망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서사가 완성될 수 있었다.

이상 「부녀부」 상편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 등장하는 여성들은 가부장제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그 존재감을 발휘했다. 이들은 사족 남성

13) 「11-9. 賢婦智納彩輜女」, “少時, 屢舉不中, 但稱以書生. 庭訓嚴毅, 恪遵義方.”;

「11-10. 嚴父醉怨錦囊兒」, “其大人恬謹耿介, 不以飢寒易操. 嚴訓其子, 見有過失, 輒裸入繩網, 懸樑上. 樵之曰: “吾家剝復係汝一身, 未有酷罰, 何望悛改?”

의 사회적·경제적 도약에 기여하고, 성적 욕망을 원활하게 관철되게 하는 대상으로 존재했다. 이는 전대 야담을 수용하여 조직·배치하는 과정에 「부녀부」 상편 조목의 핵심인 奇·佳·異가 대변하는 사족 남성의 판타지가 부단히 개입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경향성이 『동야휘집』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살펴본 「부녀부」 상편은 물론이거니와 「부녀부」 하편에 실린 이야기 대부분은 『학산한언』, 『동패락송』, 『기문총화』 등 전대 야담집에 실린 것을 전사에 가깝게 옮겨 온 것이다. 따라서 「부녀부」에 보이는 여성에 대한 시각은 전대 야담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연속성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sup>14)</sup>

#### 4.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제한적 인식: 「婦女部」 하편

「부녀부」 상편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家의 범주 내에서 가부장제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그 존재감을 표출했다. 반면 「부녀부」 하편의 여성들은 계층의 차원에서 다른 점이 있다. 전체 18편 가운데 12편이 하층 여성에 주목한 야담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주인공인 기생 혹은 여종은 家라는 범주에 포섭되지 않는다. 가부장제의 영향력이 「부녀부」 상편의 여성에게 작동하는 만큼 직접적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부녀부」 하편에서는 여성의 주체적인 면모가 좀 더 부각된다. 하지만 그 방향성이 역시나 사족 남성과 가문을 위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 경향성만큼이나 주목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다. 「부녀부」 상편과

14) 그런 점에서 야담 속 여성 이야기에 대한 보수적 시선은 사회·경제적 혼란 속 저락한 처지의 사족 남성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과 희생을 정당화하고 이를 내면화하기 위한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던(강명관(2017: 119); 김경미(2012: 263-265); 전지원(2022: 99-106)) 조선 후기의 시대적 상황도 함께 고려해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일한 계층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다. 「부녀부」 하편의 주류인 하층 여성의 서사를 살피기에 앞서 이 경우를 먼저 살피고자 한다. 해당 조목인 才慧에는 총 네 작품이 배치되어 있다. 그중에서 「12-2. 授簡書老婦垂誠」은 청대 필기집 『해탁』의 이야기를 복합적으로 수용·개작한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살필 필요가 있다.

「양사언 모친 이야기」로 알려진 「12-1. 藏扇幣童女證約」은 『동패락송』 계열, 『청구야담』 계열, 『금계필담』 계열로 세분화하여 계보가 잡힐 만큼 다양한 서사구조를 가지면서 폭넓게 향유된 작품이다. 양사언의 부친 양희수는 영광군수로 부임하는 길에 만난 영특한 소녀를 훗날 소실로 들이게 되고, 그 사이에서 양사언·양사준 형제가 태어난다. 공통적 핵심은 후반부에 보인다. 양희수의 죽음 이후 양사언 모친이 집안의 적서 구별을 없애기 위해 자결함으로써 두 아들이 적자와 다름없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대목이 그것이다.<sup>15)</sup>

「12-3. 對棘婿捧標立證」에서 주인공 허 선비는 초례 날 부친의 부고를 접하고 신부의 얼굴을 볼 겨를도 없이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장지가 마침 처가 뒷산이라 허락받기 위해 들렀다가 신부를 만나 동침하게 된다. 이후 신부는 장지로 찾아가 허 선비 일가가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죽음까지 불사할 각오로 不得手標, 雖死不回 수기를 요구했다. 허 선비의 유복자가 태어났을 때 신부에게 쓸리게 될 不正의 혐의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12-4. 納棠婢授計求嗣」에서 주인공 소달의 아내 임씨는 을묘왜변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이후 자식을 생산하지 못했다. 이에 여종을 침실로 들여보내 2남 1녀를 얻어 친정에서 몰래 기른 뒤 훗날 후사로 삼았다는 이야기다.

15) 「12-1. 藏扇幣童女證約」, “乃曰: “妾有二子, 作人不甚愚鹵. 然東俗自來賤孽, 渠雖潘岳般貌·子建般才, 不齒士夫之列, 將焉用哉! 嫡長諸兄, 雖愛恤無間, 而妾死之後, 當服總麻三月, 則於是而嫡庶判矣. 吾兒處身, 雖欲掩迹, 便是以鎌遮眼, 祇益露醜. 妾欲於今日自裁, 使其服制, 混同彌縫, 泯滅吾兒庶孽之名. 幸望列位, 哀之憐之俾賤身, 無至飲恨於九泉, 則雖死之日, 猶生之年.””

양사언 모친은 서모라는 신분적 제약이 있다. 허 선비의 신부는 喪中인 남편과 동침했고, 소달의 부인 임씨는 가문의 종적 재생산에 기여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가부장제의 주변을 맴돈 인물이라 하겠다. 그들은 주체성을 발휘해 결격 사유를 극복하고자 했다. 양사언의 모친은 자결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택해 적서 차별을 없앴다. 허 선비의 신부는 윤리적 금기 위반을 혐의해 시가 친지들이 모두 모인 장지에서 동침의 징표를 요구했다. 소달의 부인 임씨는 한사코 거부하는 남편이 여종과 동침할 수 있게 속임수를 썼다. 이들의 주체적 행위는 가부장제의 주변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에 기반한다. 하지만 그것이 발휘되는 방향성에는 사족 남성이 설계한 가부장제의 영향력이 다분히 개입하고 있었다. 편찬자 이원명이 이런 행위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지적하면서도,<sup>16)</sup> 그 정성과 간절함을 측은하게 여기고 재주와 식견이 탁월한 절부로 평가한 대목은<sup>17)</sup> 이를 입증한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외부 서사인 『해탈』에 기반해 성립한 「12-2. 授簡書老婦垂誠」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sup>18)</sup> 『해탈』 권9의 「村姬毒舌」과 「節母死時箴」을 결합한 것인데, 이야기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 ① 進仕 任希進은 호남 사람으로 임진왜란 때 진주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 ② 그 선조인 임 선비는 글재주가 있었는데 결혼 전에 향시에 급제하고 회시를 보기 위해 떠났다.
- ③ 임 선비는 長城을 지나다가 한 소녀와 만난다. 그 모친에게 혼인 의사가 있나

16) 「12-3. 對棘媼捧標立證」, “外史氏曰: “天不欲使斯人絕嗣, 故葬地之占其家後, 妻母之勸以見女, 俱非偶然, 而棘人事, 尤係常情之外. 女之慧識, 能透察於禍福微茫之間, 乃辦非常之舉, 言正理順, 經權互用. 可謂其智不可及也.””

17) 「12-4. 納棠婢授計求嗣」, “外史氏曰: “林之自剄免辱, 蘇之誓不置媵, 其節可嘉, 其義可尚. 天若見憐, 何靳錫胤, 而皇天無知, 伯道無兒, 子文無后, 何以勸善? 自昔然矣. 理難謀斯, 林乃施計納婢, 使夫有子, 其誠心懇惻, 才識卓越, 非直爲烈節之婦也!””

18) 이하 작품 분석은 졸고(2025: 103-106;138-139)를 주요하게 참조하였다.

고 물었지만 거절당한다.

- ④ 회시를 보고 돌아오는 길, 다시 장성에 들르지만 소녀의 모친은 만나주지 않았다.
- ⑤ 그 집안의 숙부에게 부탁하여 마침내 소녀를 얻어 데려갔는데 펍 총명하고 재주가 있었다.
- ⑥ 얼마 후 임희진의 선조는 세상을 떠났고 부인이 된 소녀가 유복자를 낳고 수절하며 살았다.
- ⑦ 부인이 80이 넘어 임종하면서 孫婦들을 불러놓고 수절을 개인의 의지에 맡긴다는 유훈을 남긴다.
- ⑧ 사람들이 그 말에 경악하자 자신의 옛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과거 욕정에 못이겨 남자의 방에 찾아갔다가 바깥의 인기척에 놀라 방으로 돌아와 잠들었고 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남편을 만났다고 했다.
- ⑨ 자식들에게 수절을 개인에게 맡김을 家法으로 명시하게 한 뒤 웃으며 숨을 거두었다.

①~④는 『해탁』의 「춘희독설」, ⑥~⑨는 『해탁』의 「절모사시잠」을 전제한 것이다. ⑤는 두 이야기의 연결을 위해 설정된 서사 단락이다. 두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큰 변화는 발견되지 않기에, 이들이 한 이야기로 연결된 경위를 해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임 선비는 회시를 보러 떠나는 길에 들르게 된 長城에서 한 소녀를 만나게 된다. 소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어미를 불러온다. 임 선비는 소녀와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거둬 설득했지만, 어미는 완고하게 거절했다. 임 선비는 세 차례의 설득에 모두 실패했다. 임 선비는 가장 먼저 ‘女子有行’ 운운하며 예법 이야기를 꺼냈다.<sup>19)</sup> 그 뒤에 향시 급제와 황금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두 모녀는 급제나 황금이 무엇인지를 되물을 정도인, 그야말로 티 묻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임 선비가 점잖게 꺼냈던 가부장제적 예법은 그 때문에 설득의 수단이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임 선비는 결국 소녀와 혼인하게 된다. 혼사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간 임 선비

19) 「12-2. 授簡書老婦垂誡, “女子有行, 遠父母兄弟膝下, 非長計也.”

는 장씨 부인의 충명함에 그녀를 더욱 아끼며 사랑했지만, 몇 년 되지 않아 죽게 된다. 이후 장씨 부인은 유복자를 낳아 기르며 수절 과부로 여든 남짓 살다가 온 가족이 모인 임종 날 충격적인 유혼을 남긴다. 집안 여자들의 수절을 개인 의지에 맡긴다는 것이었다.

「12-2. 授簡書老婦垂誠」의 핵심은 村姬가 수절에 대한 유혼을 남기는 節母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 그래서 사평에서도 임 선비의 눈을 사로잡은 촌희가 아니라 절모 장씨 부인에 시선을 모아 智婦로 평가했다.<sup>20)</sup>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장씨 부인의 두 자아에 보이는 가치관의 불균형이 이념적 경사로 귀결된 결과로 봤다(이강옥, 1995: 86-87). 납득할 만한 분석이지만, 오히려 편찬자 이원명이 그 차이에 의도적으로 주목했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이야기는 가부장제의 심부로 이끌려 들어가는 여성의 일생을 포착한 것이 된다. 그런 점에서 毒舌을 지닌 철 없던 '村姬'가 유혼(箴)을 내리는 정숙한 '節母'로 거듭나는 서사의 변화는 주체적 면모를 발휘해 자신이 위치한 가부장제의 주변부에서 벗어나려 했던 앞선 이야기의 양상과 유사하다. 편찬자 이원명은 이를 위해 『해탁』의 두 이야기를 수용해 한 이야기로 개작하면서 그 결말을 윤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12-2. 授簡書老婦垂誠」의 결말은 장씨 부인의 충격적인 유혼이 가법으로 자리 잡자, 가문의 후손이 번성하였고 대대로 절부가 나와서 백년이 지나도록 규문에 맑고 깨끗한 풍습이 있었다는 전언으로 끝맺음한다. 장씨 부인이 고백한 꿈 이야기는 수절의 지난함과 그로 인해 수절이 강요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가문의 안녕과 규방의 법도 확립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수절을 위임한다는 유혼과 규

20) 「12-2. 授簡書老婦垂誠」, “外史氏曰: “男女之際, 大慾存焉. 故聖人制禮, 以之防閑, 而未流之弊, 轉或難言, 然豈可因噎而廢食哉! 但青年守節, 非緣人人之皆有志操, 而禮防莫越, 便成俗習, 則不無意外之慮. 故張氏能以一言規諷, 簡書垂訓, 世守閨範, 誠智婦也.””

방의 법도가 잘 지켜졌다는 결과가 펴 정합적이지 않아 보인다. 어색함이 느껴지는 이러한 결구는 편찬자 이원명이 『해탁』의 「節母死時箴」을 수용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문중에 후손이 번성하였고, 대대로 절부가 나왔고 간혹 개가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백년이 지나도록 규문이 맑고 깨끗한 풍습이 있어 음란한 사건(中蕪之事)이 없게 되었다.

[後宗支繁衍, 代有節婦, 間亦有改適者. 而百餘年來, 閨門清白, 從無中蕪之事.]  
『해탁』 권9, 「節母死時箴」

문중에 후손이 번성하였고, 대대로 절부가 나와서 백년이 지나도록 규문에 맑고 깨끗한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後宗支繁衍, 代有節婦, 百餘年來, 閨門清白云.]  
『동야회집』, 「12-2. 授簡書老婦垂誡」

『해탁』의 「절모사시잠」에서는 이후 가문에 간혹 개가하는 이가 있었다고 증언한다. 백년이 지나도록 가문에 음란한 일이 없게 되었다는 대목도 있다. 하지만 「12-2. 授簡書老婦垂誡」에서는 간혹 개가한 이가 있었다는 서술과 함께 음란한 일이 없게 되었다는 대목도 지웠다. 이로 인해 수절을 개인에 위임한 장씨 부인의 유훈은 오히려 ‘집안 대대로 절부가 나오는’ 결과를 유도한 것으로 둔갑한다. 이러한 변화는 장씨 부인의 꿈을 수절의 지난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윤리적 죄책감으로 읽어내는 데서 기인한다. 장씨 부인은 꿈을 고백하면서 여성의 주체성을 억압할 수 없음을 말했지만, 편찬자 이원명은 그런 메시지를 외면하고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폐쇄적 시각을 투사했다. 그 결과 장씨 부인의 주체성은 여성의 수절을 강요했던 가부장제가 원활히 작동하는 데에 기여했다. 이로써 「12-2. 授簡書老婦垂誡」도 다른 이야기들과 동일한 방향성이 부여되며 才慧 조목에 실릴 수 있었다.

이어지는 妬悍 조목 역시 양반가 여성이 주인공이란 점에서 才慧 조목

과 비슷하다. 그러면서도 가부장제에서 금기시하는 妬恨을 전면으로 표제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기 실린 두 이야기는 시기와 질투를 겸비한 부인이 기생을 총애한 남편에 대한 대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같다. 하지만 「12-5. 憐女貌赦罪接話」에서 재상의 부인이 기생을 만나 그 미색에 감탄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았다면, 반대로 「12-6. 削夫髻施罰雪憤」에서 우상중의 부인은 남편의 수염을 남김없이 잘라버리는 것으로 응징한다. 그 뒤 일의 자초지종이 알려지자, 우상중은 水使에서 파직된다.

「12-5. 憐女貌赦罪接話」는 『기문총화』 219화 조태억의 부인 심씨 이야기를 전사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심씨 부인이 기생을 만나 그 미색에 감탄하고, 순순히 돌려보내는 장면에서 부연이 이뤄진다. 심씨 부인은 본인이 남자였더라도 혹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陽城과 下蔡, 桓司馬 桓溫과 그 처의 고사를 동원해 남편의 총애를 정당화했다.<sup>21)</sup> 남성의 성적 욕망을 적극 긍정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부녀부」 상편의 취첩답에 보이는 경향성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2-6. 削夫髻施罰雪憤」은 상반된 결구를 보인다. 두 이야기를 한 짝으로 삼는 『동야휘집』의 특에는 통상 유사한 이야기가 배치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유난한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다. 다만 사평에서 편찬자 이원명은 규방의 법도와 풍속을 해친 外黃富女와 陳季常의 처에 대한 고사를 끌어와 우상중의 부인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을 실었다.<sup>22)</sup> 시기와 질투로 악명 높은 이들보다 더하다는 평가는, 표현만

21) 「12-5. 憐女貌赦罪接話」, “沈氏曰: “汝果尤物. 惑陽城·迷下蔡古語, 誠然! 吾之此來, 欲使汝, 作嬋娟洞裏魂, 少洩此忿恨. 及見汝, 眞傾城絕色, 設令吾是男子, 一見汝, 便當有憐玉偎香之想, 何況老奴乎? 昔桓司馬之妻, 南郡主, 憤其夫之妾李勢女, 持刀往欲斫之, 見其姿貌絕麗, 乃擲刀抱之, 曰: ‘我見猶憐, 何況老奴? 今吾於汝亦云, 汝可往侍吾家令公, 而令公炭客也, 至於沈惑生病, 則汝罪當死, 必愼之.’”

22) 「12-6. 削夫髻施罰雪憤」, “外史氏曰: “君子以夫婦造端, 故冀缺之, 相敬如賓, 孟光之舉案齊眉, 傳爲美事. 至若外黃富女之庸奴, 其夫陳季常妻之獅吼河東, 乖閨

바꾸었을 뿐 남성의 성적 욕망을 변호한 「12-5. 憐女貌赦罪接話」에서의 부연과 동일한 의도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부녀부」 하편의 주류인 하층 여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중에서 기생에 대한 것이다. 이들은 앞선 이야기들과 계층적 차원에서 차이를 보이고, 그로 인해 발휘되는 주체성의 강도도 더 높다. 하지만 가부장제가 설정한 家의 직접적 영향력 밖에 위치한 이들의 이야기에서도 사족 남성의 시선이 부단히 개입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대상만 달라졌을 뿐 여성 서사에 대한 보수적 시각은 바뀌지 않고 유지되었던 것이다.

기생 일타홍이 주인공인 「12-10. 簪花路遇諧舊緣」에 보이는 변화의 일단은 이를 입증한다. 일타홍 이야기에 대한 서사적 관심은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과 비극적 결말의 절절함에서 동력을 얻는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심희수의 발신 과정에 보이는 일타홍의 헌신으로 구체화되면서 서사성을 갖추게 된다. 요컨대 일타홍 이야기의 본질은 두 사람의 가슴 시린 사랑에 있고, 일타홍의 기여는 서사화의 수단이라 하겠다.

그런 일타홍 이야기가 『동야휘집』에 실리는 과정에서는 일타홍의 헌신과 기여에 초점을 맞추었다. 「12-10. 簪花路遇諧舊緣」에서 주요하게 참고한 것은 『천예록』 계열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편찬자 이원명은 『동패락송』 계열의 일화를 가져와 부분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일타홍이 심희수의 과거 공부에 대단히 깊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그것이다. 『천예록』 계열에서 일타홍은 심희수의 과거 공부에 그다지 개입하지 않는다. 과거에 힘쓸 것을 주문하고 급제하게 되면 곧 만날 것이라는 약속이 전부다.<sup>23)</sup> 하지만 『동야휘집』에서 이 장면은 “매일 아침 이웃 스승에게

範而傷風教矣。禹妻兼有馮婦搏虎之力，其悍固難制，而施棍削髻，有浮於庸奴獅吼，殊可駭也。”<sup>24)</sup>

23) 정환국 책임교열(2021), 50-51면. “自是兩情沈惑，晝夜掩門不出。紅蓋未曾經人，初與吾相逢也。如是者十餘日，紅忽語我曰：“此非長久之道，當與君暫相分離，以圖後會。”吾問之，則曰：“妾之終身事君，意已決矣。但君上有父母，而未娶正室，即今豈許君之先畜一妾乎？妾觀君器度才品，必當早登科第，位躋卿相。妾從今

가서 학업을 배우게 하였고, 애오라지 곁에서 지켜보며 종일 글을 읽도록 권했다네. 기름을 태우며 아침까지 계속 엄하게 과정을 세웠지. 조금이라도 태만하면 이별하겠노라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네.”<sup>24)</sup>라는 대목을 시작으로 상세하게 부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심희수의 과거 급제에 일타홍의 지분을 높이고자 했던 편찬자 이원명의 의도가 작동한 결과였다(김준형, 2022: 91-92).

일타홍 이야기가 여성의 직접적인 헌신과 기여를 제시한 것이라면, 「12-11. 尼菴逢郎問登科」는 간접적인 공로를 보여주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주인공 盧禎은 宣川府使로 있는 武弁 당숙에게 혼수를 구하러 떠났다가 한 기생을 만난다. 기생은 혼수 요청을 거절당한 노진을 집으로 불러들인다. 노진과 동침한 기생은 모친의 반대에도 그에게 시집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마침내 후일을 약속한 노진은 기생의 도움으로 혼수를 마련했고, 과거에도 급제했다. 이후 관서 지방 암행어사로 가게 되어 우여곡절 끝에 成川에서 비구니가 된 기생과 재회했다. 편찬자 이원명은 기생의 지인지감과 정의감, 수절하고자 비구니가 되기를 선택한 정절을 칭송하며 기생의 정성 어린 마음이 노진의 발신을 이끌어냈다고 지적했다.<sup>25)</sup>

기생의 공로가 인정되긴 했지만, 일타홍처럼 직접적이진 않다. 여성의 헌신과 기여를 보여준다기에는 서사적 인과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且, 辭君而去, 當爲君潔身全節, 以待君之登科, 遊街三日之內, 復與君相會, 以此爲金石之約. 君於擢第之前, 勿復念妾, 且勿以妾之失身從他爲慮. 妾自有藏身之道矣. 君之登第之日, 是妾重逢之秋耳.” 仍握手相分, 飄然而去, 少無惜別悽黯之色.” (『정본 한국 야담전집』2, 『天倪錄』)

24) 「12-10. 簪花路遇諧舊緣」, “每朝俾余受訓於隣塾以來, 輒坐兀傍, 鎮日勸讀, 焚膏以繼日, 嚴立課程. 少有意懶 則必告別以恐動.”

25) 「12-11. 尼菴逢郎問登科」, “外史氏曰: “女一見玉溪, 便知爲貴人, 許以歸身, 此慧識也; 揣守宰之量狹, 損己財以資助, 此仗義也; 匿形藏踪, 免被入污, 待阿郎之成名, 此貞節也. 天感至誠, 俾諧宿願, 玉溪之早登青雲, 亦此女之誠心攸召, 甚奇哉!”

래서 내용의 부연이 일어난다. 「12-11. 尼菴逢郎問登科」의 대부분은 전대 야담의 문면을 이어받았지만, 기생과 모친이 대립하는 대목에서 장황한 서술이 추가되었다. 노진을 탐탁치 않게 여긴 모친이 그를 내쫓으려 연일 화를 돋구자, 마침내 기생은 결코 다른 곳에 시집가지 않겠다고 선언한다.<sup>26)</sup> 그러자 모친은 지금까지 애지중지하며 딸을 기른 것이 저런 못난 남자의 짝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부귀하고 현결찬 남자들이 몇 년째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여기에는 남루한 노진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부정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그와 혼인하게 되면 부귀영화는 고사하고 딸의 앞날에 고생길이 훗날 게 뻗었다. 곱게 키운 딸에게 어리석다거나 미쳤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반대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sup>27)</sup> 하지만 기생은 오직 자신의 눈에 비친 노진의 가능성을 믿을 뿐이었다.

여인이 발끈하면서 말했다.

“이 분은 지금 비록 어려운 처지에 떠돌이 신세지만 골상이 비범하니, 제 눈으로 봐도 반드시 위대하고 존귀해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가히 눈앞의 가난하고 곤란한 처지를 꺼려서 훗날 영화롭게 될 것을 생각지 못하십니까? 제게 대문에 기대어 웃음이나 팔고 오래된 남자는 보내고 새로운 남자를 맞이하라면 차라리 한 번 죽기를 달갑게 여기지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제 뜻은 이미 명세하였으니 여러 말 마시길 바랍니다.”<sup>28)</sup>

26) 「12-11. 尼菴逢郎問登科」, “玉溪自想, ‘日暮途窮, 進退維谷.’ 遂與同禍, 兩情俱殷. 信宿幾日, 女母苦其留連, 始以言辭挑怒. 玉溪恭謹如初, 已而, 聲色競嚴. 女益不堪, 矢以靡他.”

27) 「12-11. 尼菴逢郎問登科」, “母乃執掌話女, 曰: ‘吾育汝以掌珠, 裹汝以繡襦, 式于至今, 吹之恐飛, 執之恐陷者, 豈欲以種蘭蕙而伴靡蕪乎? 要得嘉耦榮及渠母. 仄聞, 本府官司, 少年名武, 方求美妾, 擬如石家之百琲買姬, 媒妁朝暮至矣. 且吾東隣張生, 貌若潘岳, 富埒猗頓, 風流豪奢, 不羨盧家之鬱金堂, 皆牆窺汝已三年. 吾當爲汝議配, 汝上可得金谷之富貴, 下不失莫愁之歡樂. 今欲從蓬頭鼻涕之一愚獸兒, 汝非癡惑也, 是風狂.’”

28) 「12-11. 尼菴逢郎問登科」, “女慨然曰: ‘此郎雖落魄旅邸, 骨相非凡, 以吾肉眼, 亦知其必大貴矣. 豈可嫌於目前窮困. 不思日後榮華乎? 要我倚門, 獻笑送舊迎新,

모친의 발화는 눈앞의 가치를 향한 것이었다. 하지만 기생의 논리는 그렇지 않다. 지금의 처지가 궁색하다고 해서 그 사람됨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진에 대한 기생의 믿음은 확고했다. 노진을 알아본 지인 지감, 그의 곤란한 처지를 도운 정의감, 그를 위한 수절의 노력은 모두 그 확신이 전방위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결과였다. 이런 기생의 믿음이 없었다면 노진은 혼수를 변통할 길이 없었을 것이고, 나아가 과거 급제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편찬자 이원명은 모친의 결사반대에도 확고부동했던 기생의 믿음이 드러나는 장면을 장황하게 부연했다. 이로써 서사에 부족한 인과성이 채워졌고, 노진에 대한 기생의 헌신과 기여 서사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었다.

이상으로 「부녀부」 하편의 경향성에 대해 살폈다. 여기 등장하는 여성들은 「부녀부」 상편에서의 주인공들과는 신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물론 초반부 才慧·妬悍 조목의 경우는 예외적이다. 허나 그 여성 주인공들 역시 가부장제의 주변부를 맴도는 이들이었다는 점에서 「부녀부」 상편이 아닌 하편에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상적 차이는 여성의 주체성이 적극적으로 발휘되는 동력이 되었다. 중요한 점은 그 주체적 면모 역시 「부녀부」 상편에서처럼 사족 남성이 고안한 가부장제를 향해 부단히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sup>29)</sup> 따라서 여성 주인공의 계급적 차이나 주체성의

寧甘一死, 決不情願. 吾志已誓, 幸毋多言.”

29) 이런 경향성이 모든 이야기에 남김없이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情義·才妓·名唱 등 「부녀부」 하편의 후반부에 배치된 조목에서는 기생의 성품이나 재능에 초점을 맞춘다. 「12-13. 蠹石樓兩女黜陟」에서 박문수를 기다린 급수비, 「12-14. 納淸亭二客哂笑」에서 수절을 다짐한 기생 巫雲, 「12-15. 咸關對唱娥留期」에서 李匡德을 기다린 기생 可憐, 「12-16. 長城遇詩妓見賣」에서 뛰어난 시재를 갖추어 어사를 농락한 기생 盧兒가 그러하다. 한편 「12-17. 星月每道三可笑」과 「12-18. 玉香爲說兩未忘」에서는 각각 명기생 星山月과 玉香의 과거 회고를 통해 경계의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들 이야기에서 주목한 의로운 성품이나 수절 의지, 뛰어난 시재 등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될 뿐이다. 앞서 그런 요소들을 남성의 발신이나 성적 욕망 충족의 발판으로 인식한 「부녀부」의 경향성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나 이들의 이야기에서 세교적 메시지

발현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부녀부」 하편에 주요하게 작동하는 문법 또한 사족 남성과 그 가문에 대한 여성의 희생과 기여를 일관되게 말한 「부녀부」 상편의 경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 5. 맺음말

『동야휘집』 「부녀부」에서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열등한 사족 남성이 그로부터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자, 복수적 성관계에 대한 욕망의 대상으로서 여성을 반복적으로 형상화했다. 여성 주인공의 계층이 달라지더라도 이러한 문법은 여전히 우세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부녀부」에 보이는 여성에 대한 시각은 단지 『동야휘집』만의 예외적 특성인가.

여성의 형상을 최초로 묶음화한 것으로 알려진 漢나라 劉向의 「列女傳」은 여성 104명을 일곱 유형으로 나누어 입전했다. 음탕하고 도리에 어긋난 여성이 중심에 놓이는 「孽廢傳」을 제외한, 「母儀傳」·「賢明傳」·「仁智傳」·「貞順傳」·「節義傳」·「辯通傳」에서는 여성의 전범을 입전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천편일률적인 婦德의 묘사를 벗어난, 다시 말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주체적 여성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여성들의 면모조차도 남성이 구축한 가부장제를 적극적으로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열녀전」 편찬의 본래 의도에서 결코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정재서 편, 2002: 25). 여성의 형상화에 대한, 이 유구한 전통이 갖는 문학적 보편성은 야담의 영역이라고 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동야휘집』은 전대 문헌과 야담집에 실린 내용을 광범위하게 포섭한

---

를 이끌어내려 했던 시도에 여전히 남성의 시각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야담집이다. 그 말은 곧 거기에 소속된 이야기들이 갖는 성격이, 결코 『동야휘집』에 이르러 형성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sup>30)</sup> 특히 ‘계보화’와 ‘반복적 작품쓰기’의 관점에서 「부녀부」에 실린 여러 이야기는 전대 야담집과 문헌에서 동일하게 발견된다. 다시 말해, 여성을 가부장제의 틀 안으로 포획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야담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으며, 『동야휘집』에만 국한된 현상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녀부」의 이야기는 『동야휘집』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재고하기 위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 근거 중의 하나가 여성에 대한 보수적 시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녀부」의 보수적 경향성은 『동야휘집』의 서사 원천이 전대 문헌과 야담집에 산재된 것들이었다는(이강욱, 2006: 373-374) 점을 유념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편찬자 이원명 고유의 보수적 성향을 논란하기보다, 전대 야담에서부터 이어진 문제의식의 연속성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야휘집』에 가해진 보수성이라는 평가는 연속성을 고려한 문학적 보편성의 차원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졸고, 2024: 314-316).

30) 이야기의 변개 양상이나 사평을 통해 남성중심적 시각을 덧입히고 있는 점 등은 『동야휘집』의 온전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술했듯 「부녀부」에 실린 이야기들의 전반적 성립 경로를 본다면 전대 야담을 전사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편찬자 이원명이 기존의 경향성을 보다 강화한 점을 지적할 순 있어도, 그 보수성 자체를 『동야휘집』만의 문제로 지목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 | 참고문헌 |

### (1) 자료

- 김종균 외 6인 번역·김현룡 책임 감수. 2023. 『東野彙輯 완역본』 제1~4책, 황금비.  
정환국 책임교열. 2021. 『정본 한국 야담전집』 권2 (『天倪錄』). 보고서.  
\_\_\_\_\_. 『정본 한국 야담전집』 권8 (『東野彙輯』). 보고서.

### (2) 단행본

- 강명관. 2017. 『희생의 섬, 연암의 아나키즘』, 휴머니스트.  
김경미. 2012. 『家와 여성』, 여이연.  
이강욱. 2006. 『한국 야담 연구』, 돌베개.  
정재서 편. 2002.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열녀전』에 대한 여성학적 탐구』.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 (3) 논문

- 강영순. 1995. “조선 후기 여성지인담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곽정식. 2006. “조선 후기 문헌설화에서 살펴본 여성의烈과 性的의 문제”. 『인문과학논  
총』 11-1: 25-48.  
김대중. 2019. “서형수 조선후기 지배엘리트의 보수적 합리성과 그 명암”. 『진단학보』  
133: 125-165.  
김상조. 2003. “중산 이원명의 의식의 지향점과 야담에 대한 인식”. 『영주어문』 6:  
125-144.  
김준형. 2022. “〈일타홍(一朵紅) 이야기〉의 형성과 변전. 그리고 소멸”. 『한국문학연  
구』 69: 49-131.  
김지연. 2016. “조선 후기 결혼이야기에 나타난 여성의 주체성과 성취의 한 양상”. 『한  
국어와문화』 20: 39-66.  
남궁윤. 2022. “계보를 획득한 야담들과 그 서사적 특징”. 『한국문학연구』 69: 11-48.  
이강석. 2024. “『동야휘집』의 구성원리와 편찬의식에 관하여-편찬의 구체적 원칙과  
문학적 기획 의도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90: 289-329.  
\_\_\_\_\_. 2025. “『東野彙輯』 研究-이야기 구성과 지향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이강욱. 1995. “『東野彙輯』의 『諧鐸』 수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2: 43-96.

- \_\_\_\_\_. 2008. “야담에 나타나는 여성 정욕의 실현과 서술 방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6: 175-217.
- 이승은. 2020. “야담에 나타난 정욕 담론과 성적 주제 인식: ‘심심당한화(深深堂閑話)’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62: 111-142.
- 이신성. 1993. “『천예록』 소재 여성 인물야담의 성격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월영. 1997. “야담집 소재 여성담 연구-반여성이데올로기 여성담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39: 339-359.
- 이주영. 2018. “조선 후기 야담에 나타난 여성 정욕의 표출과 그 대응의 몇 국면”. 『한국고전연구』 41: 103-133.
- 장진숙. 1993. “조선 후기 야담집 소재 치부담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지원. 2022. “조선 후기 사족여성 생애자료에 나타난 여성노동 담론”.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규식. 2007. “조선 후기 한문단편을 통해 본 여성과 性”. 『동남어문논집』 23: 179-198.
- 정솔미. 2018. “〈吉女〉에 나타난 권력의 양태와 저항의 실상”. 『고전과 해석』 26: 131-161.
- 정환국. 2024. “『동야회집』의 이야기 변개 전모와 그 성격”. 『국문학연구』 50: 235-270.
- 진경환. 1983. “야담의 사대부적 지향과 그 변개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기숙. 2002. “성적 인간의 발견과 ‘욕망’의 수사학-18·19세기 야담집의 ‘기생 일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26: 53-90.
- \_\_\_\_\_. 2003a. “관계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 성, 사랑, 권력 -18·19세기 야담집 소재 ‘강간’과 ‘간통’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0: 243-275.
- \_\_\_\_\_. 2003b. “사랑’의 담론화 방식과 의미론적 경계-18·19세기 야담집 소재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18: 305-348.
- \_\_\_\_\_. 2003c. “여성성의 재발견 이성, 지혜, 성공의 탈영토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193-229.
- 현혜경. 1987. “한문단편의 서사 구조에 있어서 지감화소”. 『한국한문학연구』 9·10합집: 353-376.

Abstract

Perspectives on Women in the 「婦女部」 of 『東野彙輯』  
and Their Implications

Lee, Kang-Seok  
(Pusan National University)

Women in 野談 are often portrayed as figures projected through the gaze of elite men. Many of these stories were widely circulated and enjoyed, to the extent that they established their own narrative lineages.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tendencies found in the 「婦女部」 of 『東野彙輯』, a comprehensive anthology of earlier 野談 narrativ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portrayal of women. The protagonists in Part I of the 「婦女部」 are women situated directly under the influence of the patriarchal order. They are concretized as instruments through which elite men aim to overcome their declining social and economic status, and as objects for the fulfillment of sexual desire. In contrast, the female protagonists of Part II exist somewhat outside the immediate reach of the patriarchal household structure. As such, they are able to demonstrate a greater degree of subjectivity. However, even this subjectivity operates within the constraints of the patriarchal order devised by aristocratic men. In this respect, the same underlying grammar as in Part I is maintained. This tendency observed in the 「婦女部」 offers a clue for re-evaluating the conventional assessment of 『東野彙輯』 as a conservative 野談 anthology. 『東野彙輯』 encompasses a wide range of earlier texts and 野談 stories, and in the case of the 「婦女部」, most narratives are transcribed from preceding 野談 collections. While there are exceptions involving elaborations or modifications, such instances tend to reinforce rather than deviate from existing patterns. Therefore, the

tendencies found in the 「婦女部」 of 『東野彙輯』 should be understood in terms of continuity with earlier 野談 traditions. In this light, the evaluation of 『東野彙輯』 as a conservative work could be moderated by acknowledging its representative nature and broader relevance.

**Key words:** 野談, 『東野彙輯』, 「婦女部」, Women, subjectivity, elite men, desire

- 투 고 일 : 2025년 3월 16일
- 최초심사일 : 2025년 4월 4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4월 25일

